

터키 농업현황 및 시사점 *

안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일반연왕

아시아 서부와 유럽 남동부 사이에 위치한 터키 공화국은 1923년 10월 29일 건국된 국가이다. 터키는 11세기 이후 셀주크투르크에 의해 이슬람화 되었던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아타튀르크의 급진적 개혁으로 종교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탄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99.8%)의 국민들이 무슬림(수니파)으로, 종교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친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터키는 주변국들과의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동국가들과 같은 이슬람교 국가임에도 서방 국가와 친교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를 “이슬람 민주주의 모범사례”로 칭하고 있다.¹⁾

터키는 고성장개발도상국(Rapidly Developing Economies) 중 하나이다.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약 8배에 달하며, 8,0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25~54세의 비율이 42.9%로 가장 많고, 0~14세는 25.5%, 65세 이상은 6.6%의 인구분포도를 갖고 있다. 공식 언어는 터키어이며, 쿠르드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를 함께 사용한다. 민족 구성을 보면, 대다

* (crystalism14@krei.re.kr 02-3299-4034).

1) KOTRA 국가정보(2014). 터키 정치사회동향.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26/101026_102_5058755.pdf

수는 터키계(86%)이고, 그 다음으로 쿠르드계(9%),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유태인 순이다.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1만 782달러이며, 총 GDP의 8.9%는 농업, 27.3%는 일반산업, 그리고 63.8%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된다. 전체 노동인구의 25.5%가 농업에 종사하며, 26.2%는 일반산업, 48.4%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²⁾

터키는 GDP의 71%가 국내소비이며, 26.6%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장을 통해 창출되고 있다.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이후 2013년 기준 수출은 1,676억 달러, 수입은 2,429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 터키는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4%대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EU경제 의존도가 높아 EU의 경제 불황에 대한 여파와 물가상승률(7.6%, 2013년 기준)에 이르러 터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부터 한국은 터키와 꾸준히 교역을 늘려왔고, 對한국 수입 규모가 50억 달러였던 2011년과 달리 지난 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對한국 수입 규모가 691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적자의 폭이 증가하였다. 현재 터키의 수출 주력품목은 화학제품과 직물·편직제 의류 등인데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현안 과제이다.

그림 1 터키 지도



자료: <http://tanack.com/en/countries/turkey/economy/agriculture/>

2)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u.html>

1.1. 터키의 농업

세계 농업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터키 경제에서 농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1>에 2002년과 2012년도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인구가 증가한 반면 농업 종사자들이 상당 수 감소한 점을 알 수 있다. 고용측면에서도, 전체 고용 수는 증가했지만, 농업분야의 고용 노동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농업 수출입액은 2002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터키 주요 농업 지표

기본 지표	2002			2012		
	전체	농업	농업 비중	전체	농업	농업 비중
인구	6,930만 명	2,370만 명	34.2%	7,560만 명	1,720만 명	22.7%
고용인구	2,130만 명	74만 명	34.9%	2,480만 명	610만 명	24.6%
GDP	2,305억 달러	237억 달러	10.3%	7,863억 달러	625억 달러	7.9%
1인당 GDP	3,492 달러	1,064 달러	28.6%	10,504 달러	3,622 달러	34.5%
수출	360억 달러	40억 달러	11.2%	1,525억 달러	160억 달러	10.5%
수입	515억 달러	39억 달러	7.7%	2,365억 달러	163억 달러	6.9%

자료: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Republic of Turkey.

전체 국토의 절반이 농경지와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고, 삼림지역도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농가 수는 약 300만 농가로 집계되고 있고,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6헥타르(1만 8,150평)로 대부분 대형농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터키 농가의 1인당 GDP 또한 2002년 대비 3배정도 증가하였다. 터키 농축산식품부는 “농업이 개선될수록 터키가 발전 한다 (As Agriculture is improving, Turkey is developing)”라는 선언 하에 터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02년 기준 터키 내 농업으로 인한 국가 수입이 237억 달러였던 반면, 2012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625억 달러였다. 터키의 농업은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변동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도 꾸준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기준 40억이었던 농산물 수출액은 2012년 기준 188개국에 1,663개 종류의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약 16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터키의 주요 수출용 농산물 중 생산량 측면에서 30개 품목, 수출량 측면에서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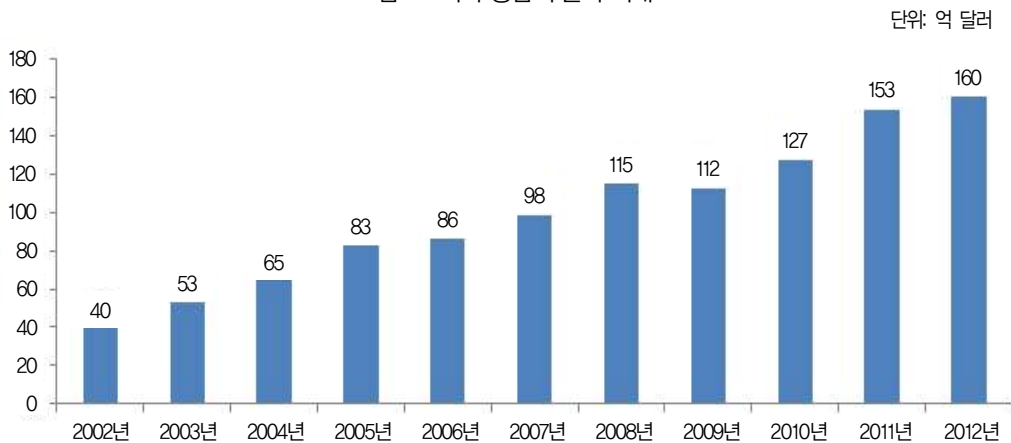
품목이 세계 상위 5위권 안에 들며, 식량안보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터키 농업의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2002~2012년 터키의 농업 GDP와 농업 성장률

연도	농업 GDP	농업 성장률
2002	237 억 달러	8.8%
2003	302 억 달러	-2.0%
2004	370 억 달러	2.8%
2005	450 억 달러	7.2%
2006	435 억 달러	1.4%
2007	495 억 달러	-6.7%
2008	564 억 달러	4.3%
2009	510 억 달러	3.6%
2010	617 억 달러	2.4%
2011	618 억 달러	6.1%
2012	625 억 달러	3.5%

자료: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Republic of Turkey.

그림 2 터키 농업 수출의 확대



자료: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Republic of Turkey.

1.2. 터키 농업 정책³⁾⁴⁾

1990년대까지만 해도 터키 정부는 정부 구매 방식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주요 농산물가격을 관리하였다. 농업 투입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정부는 관개시설을 포함한 다른 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다양한 정부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유경제기업(State Economic Enterprises),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Agricultural Sales Cooperative Union), 국유은행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터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큰 정부의 역할을 통해 농업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한 OECD 평가 보고서⁵⁾에 따르면 터키정부의 개입으로 설립된 여러 국유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은 높은 시중 이자율로 인해 재정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 터키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진단하였다.

터키는 2001년 농정개혁을 통해 농업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기 시작하였다. 2001-2008년의 농정계획인 농업 개정 시행 프로젝트(Agricultural Reform Implementation Project, ARIP)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터키정부는 EU에 가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농업정책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터키 정부는 국립 농업인 등록제도(National Farmers' Registry System, NFRS)를 설치하고, 농가들이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당시 정책변화의 시도 목적은 농업인들이 농산품 가격 지원 제도 하에 받는 것과 비슷한 소득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생산 품목을 결정할 때 가격 신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생산 비연계 지원금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고, 심지어 2006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터키의 농업인들은 국제시장으로부터 수입관세장벽의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터키 농업에서 축산업, 낙농업, 사탕무, 곡물, 설탕, 담배 생산자들이 보호받는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 곡물과 설탕, 담배의 경우 최저가격이 설정되어 있어 직접구매를 지원받고, 사탕무의 경우 생산 쿼터 방식이다.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가금육, 계란은 수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담배와 헤이즐넛 농가들은 다른 작물에서 전환했을 시 혜택을 받고, 공급 부족 작물들은 추가지원금을 받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유종, 올리브유, 면화, 곡물, 차, 콩 생산농가에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이자율 면제와

3)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Republic of Turkey(2014). Structural Changes and Reforms on Turkish Agriculture 2003-2013.

4) World Bank(2014). Agricultural Policies and Trade Paths in Turkey. Development Research Group,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eam.

5) OECD(2011), p.10.

직불금은 축산업과 토양 보호와 소규모 농지 통합을 위한 토지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었고, 비연계성 소득지원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NFRS에 등록된 농가들은 비연계성 보조금인 “경유 지원금”과 “비료 지원금”을 받았다. 이 지원제도는 2011년 농가들에게 1헥타르 당 45 미국달러를 제공하였다. 국제 농업의 변화에 맞춰 터키 또한 유기농업에 합류하여 2005년부터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농가나 농업 경영체는 2009년부터 영농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하여 농가들의 경영위험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작물, 과수원, 온실가스, 소, 가금류, 양봉농가에 대해 우박, 냉해, 폐사에 대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었다.

2008~2012년 농업 미래전략에서 터키는 공공기관과 무역관련 업체, 생산자단체, 대학, NGO 등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81개의 시도, 545개의 군구, 3,649개의 마을에서 관련업종 종사자나 농업인들이 모여 총 5만 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을 책정하였다. 당시 농업정책은 올바른 경영, 투명성, 지속가능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원칙으로 하였고, 가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2012년에는 터키 농축산부는 농업을 사회나 생계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전략적이고 경쟁적인 다차원적 경제 분야로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며 2013~2017 농업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다섯 가지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생산과 공급의 안정화, 두 번째는 식품 안전, 세 번째는 동식물 보건 복지, 네 번째는 농업 기반 시설과 농촌 개발, 다섯 번째는 제도적 역량 강화였다. 더불어 2023년을 목표로 한 농업미래전략이 수립되었는데,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에게 충분한 양의,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식품 순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이며, 세 번째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터키는 농업 GDP는 1,500억 달러, 농업수출액은 400억 달러, 농업 GDP 면에서 세계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터키에는 크게 15개의 농업 관련 법률이 구조 변화와 농업의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에 관한 법
- 유기농업에 관한 법

-
- 농업 생산자 조합에 관한 법
 - 신제품 식물 사육자의 권리에 관한 법
 - 농업 보험에 관한 법
 - 토양 보호와 토지 사용에 관한 법
 - 묘목에 관한 법
 - 농업과 농촌 개발 보조 제도의 수립에 관한 법
 - 지랏(Ziraat)은행과 농업신용협동조합의 공동 마을 융자/단체 융자에서 초래된 보증 종료에 관한 법
 - UN Food, FAO와 터키 간 FAO 중앙아시아 소구역 사무국 동의 승인에 대한 법
 - 생물보안에 관한 법
 - 수의사 서비스, 식물 보건, 식품과 사료에 관한 법
 - 문제가 있는 농업 신용과 지랏(Ziraat)은행과 농업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
 - 식품 농업과 축산업의 기관과 의무에 관한 법령
 - 2016년 아나탈리아 EXPO에 관한 법

터키의 주요 농업정책을 보면 주요 농지 통합(규모화)사업, 농촌 금융사업, 주요 품목의 생산성 향상 지원, 자연재해 피해보전, 농업기술역량강화에 대한 내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재의 터키 농가들의 규모를 보면 소농이 많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대형 농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터키에서 추진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농경지 방지 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로, 농가마다 준수해야하는 특별품목 농경지와 한계농경지의 규모(2헥타르 미만), 경작지의 규모(0.5헥타르 미만), 온실농경지(0.3헥타르 미만)를 금지하는 법에 의해 사실상 소규모 농경지들은 강제적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1961-2002년 동안 총 45만 헥타르의 토지가 통합되었고, 2003~2012년 동안 300만 헥타르의 토지가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매년 1백만 헥타르의 토지를 통합하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터키에서는 농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 신용대출 이자율은 2002년 59%에 달했으나 현재 관개사업과 축산관련 분야는 무이자로 전환되었고,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한 이자율도 7.5%로 현저히 낮아졌다. 농업 대출금 상환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고, 투자 신용대출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그 결과 상환율은 98%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도 활성화 되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는데, 유기농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50% 높은 수준의 직불금을 지원하였고, 품종개량 가축 농가,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양봉산업에서는 50개 이상의 벌집을 갖고 있거나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신용 프로그램이 2010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인증된 종자와 묘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정부차원에서 인증된 종자와 묘목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실제로 2002년 15만 톤에 이르던 인증종자 사용률은 2011년 55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민간분야에서 생산된 인증종자도 2008년부터 농업 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보조금 지원 확대는 농축산물의 품질, 안전성, 생산성, 농촌개발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고, 52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 결과, 2002년 18억 6천 8백만 리라였던 농업 보조금은 2011년에 71억 리라, 2012년에는 76억 리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1년도까지 터키 농업보조금은 점차 축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OECD 가입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세계 농업의 흐름 상 많은 선진 국가들은 농업보조금을 상당 수준 감소시켜왔다. 최근 개정안을 발표한 EU와 미국은 보조금을 감축하고, 환경적인 요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4년 이후 EU의 정회원 후보국 지위를 유지하고 터키는 EU 가입을 앞두고 농업보조금 지원 규모에서 EU 회원국들과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많은 보조금을 삭감하여 지원제도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전에 농업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농가들의 자발적인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터키의 농산물 생산 및 교역

2.1. 농산물 생산

터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밀, 전유, 사탕무, 토마토, 보리, 감자, 옥수수 등 이다(2012년 기준). 이러한 농산물은 터키의 주요 식량으로 내수용으로 생산되고 있다<표 4 참조>. 터키인들은 밀, 보리, 감자, 옥수수, 우유 등을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케밥(Kebab)”을 들 수 있다.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의 케밥은 터키인에게 한국인의 밥과 같은 음식이다.

표 3 터키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품목	2008	2009	2010	2011	2012
1	밀	17,782	20,600	19,674	21,800	20,100
2	전유	11,255	11,583	12,419	13,802	15,978
3	사탕무	15,488	17,275	17,942	16,126	15,000
4	토마토	10,985	10,746	10,052	11,003	11,350
5	보리	5,923	7,300	7,250	7,600	7,100
6	감자	4,197	4,398	4,548	4,613	4,795
7	옥수수	4,274	4,250	4,310	4,200	4,600
8	포도	3,918	4,265	4,255	4,296	4,276
9	수박	4,002	3,810	3,683	3,864	4,044
10	사과	2,504	2,782	2,600	2,680	2,889
11	초록고추	1,796	1,837	1,987	1,975	2,072
12	올리브	1,464	1,291	1,415	1,750	1,820
13	건조양파	2,007	2,782	1,900	2,141	1,819
14	오이	1,679	1,735	1,739	1,749	1,742
15	닭고기	1,086	1,318	1,449	1,613	1,724
16	멜론	1,750	1,679	1,612	1,648	1,708
17	오렌지	1,464	1,690	1,711	1,730	1,662
18	면화씨	1,077	1,021	1,273	1,527	1,373
19	해바라기씨	992	1,057	1,320	1,335	1,370
20	양유유	-	-	-	-	1,010

주: 2012년 생산량 기준 상위 20위까지 집계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자료: FAOSTAT.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은 과거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 농업기술에 변화가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 3 참조>. <표 4>에서도 나타나듯이 터키 주요 농산물의 수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생산량이 수출시장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오히려 밀과 옥수수의 경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식량작물의 수입량이 많다는 점은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빵을 주식으로 하는 터키에게는 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표 4 터키의 주요 농산물 생산, 수출 및 국내소비량 비교

단위: 천 톤

	품목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국내소비량
1	밀	20,100	116	3,719	19,984
2	전유	15,978	18	0,3	15,960
3	사탕무	15,000	—	—	15,000
4	토마토	11,350	560	0,1	10,790
5	보리	7,100	101	76	6,999
6	감자	4,795	92	23	4,703
7	옥수수	4,600	20	807	4,580

주: 2012년 기준.

자료: FAOSTAT, UN Comtrade.

2.1.1. 곡물

밀, 보리, 옥수수는 터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자 주식의 원료이다. 특히 밀은 아나톨리아고원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재배되며 총 경지면적의 90% 이상에서 밀을 재배하고 있다.

표 5 터키 주요 곡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품목	2008	2009	2010	2011	2012
밀	17,782	20,600	19,674	21,800	20,100
보리	5,923	7,300	7,250	7,600	7,100
옥수수	4,274	4,250	4,310	4,200	4,600

자료: FAOSTAT.

그러나 밀의 생산성이 낮아 전체 소비량의 약 15.7%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리나 옥수수도 다른 작물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농무부의 전망에 의하면, 터키에서는 올 해 밀이 1천 5백 80만 톤, 보리가 280만 톤, 옥수수는 49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 터키는 올 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그 영향이 중앙 아나톨리아지역과 남쪽의 쿠쿠로바 지역의 밀과 보리 생산에 미쳤다. 터키는 미

6) USDA(2014). Turkey Grain and Feed Annual,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http://gain.fas.usda.gov/Recent%20GAIN%20Publications/Grain%20and%20Feed%20Annual_Ankara_Turkey_3-28-2014.pdf

국산 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산 밀의 유전자 조작 여부에 대한 검역 필요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표 6 터키 밀 주산지의 생산 현황

지역	2011년 평균 (톤/ha)	수확시기	2012년		2013년		2014년	
			경지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경지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경지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Cukurova	4.7	5/10-6/10	260	1,250	250	1,300	250	1,100
Hatay	4.7	5/25-6/25	85	250	85	280	85	230
Southeast	2.9	5/15-6/25	900	2,250	930	2,500	920	2,350
Central Anatolia	2.38	6/25-7/25	2,990	4,500	2,905	6,200	2,900	4,750
Polatli	3.4	6/15-7/20	130	300	130	450	130	300
Aegean	3	5/25-6/25	550	1,500	500	1,650	500	1,600
Aydin	4	5/20-6/10	6	45	6	45	6	45
Thrace	4.1	6/15-7/15	600	2,450	600	2,500	600	2,350
다른 지역	1.4	6/15-7/15	2,300	3,200	2,300	3,075	2,320	3,075
총	2.3	5/15-7/15	7,821	15,745	7,706	18,000	7,711	15,80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표 6>을 보면, 경지면적과 생산량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 비해 밀의 경지면적은 늘어났으나,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뭄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한 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량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터키 내 관개시설이 아직까지 모든 농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터키 농산물의 생산량 유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개시설을 확장하거나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2.1.2. 과일

터키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과일은 토마토이다. 케밥에 들어가는 양파, 양상추와 함께 주재료로 이용되는 토마토는 터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자 채소이다. 토마토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은 포도, 수박, 사과, 멜론, 오렌지이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포도, 사과, 오렌지의 경우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는 이 과일 외에도 따뜻한 지중해 기후에서 자라는 많은 품종의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중 포도는 중국, 미국, EU국가 등 거대국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생산

되며, 와인, 건포도 등 포도가공품도 다량 생산되고 있다. 또한 터키의 대표적인 과일 로 알려져 있는 석류는 서아시아와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며 과일 안쪽 과육과 종자를 함께 섭취하는 과일로, 껍질의 타닌과 종자의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 하여 부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7 터키 주요 과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품목	2008	2009	2010	2011	2012
1	토마토	10,985	10,746	10,052	11,003	11,350
2	포도	3,918	4,265	4,255	4,296	4,276
3	수박	4,002	3,810	3,683	3,864	4,044
4	사과	2,504	2,782	2,600	2,680	2,889
5	멜론	1,750	1,679	1,612	1,648	1,708
6	오렌지	1,464	1,690	1,711	1,730	1,662
7	무화과	205	244	255	261	275
8	석류	-	-	209	218	-

주: 2012년 기준.
자료: FAOSTAT.

과거 구약시대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 터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무화과나무가 많은 곳으로 아시아 서부 및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아열대성으로 재배가 쉽고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편이다. 연평균 기온이 15℃ 이상이고, 겨울 기온이 영하 9℃ 이상인 곳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전남 영암군과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총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주산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르투갈, 터키이다. 무화과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신선 과일로 섭취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건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⁷⁾

2.1.3. 축산물 및 유제품

무슬림이 대부분인 터키에서는 돼지고기의 섭취가 종교법으로 금지⁸⁾되어 있어 돼지산업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고, 대신 닭, 소, 양, 염소 등을 생산하여 할랄(Halal)방식으로 도살된 고기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터키의 축산업과 낙농업 분야는 낮은

7) 경기도농업기술원, 「무화과나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9603&cid=46686&categoryId=46694>

8) 하람푸드: 술,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

생산성과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수요에 대한 공급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2008년에는 높은 사료 가격과 낮은 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소의 사육두수가 감소하였고, 2009년 이후 가축에 대한 제한법 제정으로 인해 돼지, 소 등 붉은 육류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2002-2011년 사이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는 증감을 반복해왔다<표 8 참조>. 소는 육류 수요증가에 따라 2002년 대비 26.3% 증가하였고, 버팔로(Buffalo)의 사육두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양과 염소의 경우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터키 주요 가축 사육두수

단위: 마리

품목	소	버팔로	양	염소
2002	9,803,498	121,077	25,173,706	6,780,094
2003	9,803,498	121,077	25,173,706	6,780,094
2004	10,069,346	103,900	—	6,609,937
2005	10,526,440	104,965	25,304,325	6,517,464
2006	10,871,364	100,516	25,616,912	6,643,294
2007	11,036,753	84,705	25,475,293	6,286,358
2008	10,859,942	86,297	23,974,591	5,593,561
2009	10,723,958	87,207	21,749,508	5,128,285
2010	11,369,800	84,726	23,089,691	6,293,233
2011	12,386,337	97,632	25,031,565	7,277,953
증감율(2002-2011)	26.3%	-19.3%	-0.6%	7.3%

자료: Livestock Central Research Institute(2013), Dairy sector in Turkey.

터키는 축산 및 낙농 분야에서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젖소우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우유의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터키의 젖소농가는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달리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젖소농가의 81.1%가 1~9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0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0.7%에 불과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젖소품종과 기술력으로 인해 평균 연간 생산량은 두당 2톤에서 11톤으로 일정치 않다. 가축 분뇨의 경우 대부분의 터키 농촌에는 분뇨 저장고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고, 분뇨 처리에 대한 인식도 낮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¹⁰⁾

9) 할랄푸드: 과일, 채소, 곡류 등의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의 해산물과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염소, 닭, 쇠고기 등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문자 상으로는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

10) Livestock Central Research Institute(2013), Dairy sector in Turkey.

표 9 터키 주요 축산물 및 유제품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품목	2008	2009	2010	2011	2012
1	전유	11,255	11,583	12,419	13,802	15,978
2	닭고기	1,088	1,293	1,444	1,613	1,724
3	양우유	747	734	817	893	1,010
4	계란	824	865	740	810	932
5	소고기/버팔로고기	372	326	622	647	801
6	염소우유	210	192	273	321	369
7	양고기	278	262	240	253	272
8	버터	143	146	158	174	198

주: 2012년 기준.

자료: FAOSTAT.

표 10 터키의 FTA 체결현황

	국가(지역)	체결일	발효일	비고
1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991년 12월 10일	1992년 4월 1일	
2	이스라엘	1996년 3월 14일	1997년 5월 1일	
3	마케도니아	1999년 10월 7일	2000년 10월 1일	
4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2002년 7월 3일	2003년 7월 1일	
5	모로코	2004년 4월 7일	2006년 1월 1일	
6	팔레스타인	2004년 7월 20일	2005년 6월 1일	
7	튀니지	2004년 11월 25일	2005년 7월 1일	
8	시리아	2004년 12월 22일	2007년 1월 1일	2011년 6월부터 일시중지
9	이집트	2005년 12월 27일	2007년 3월 1일	
10	알바니아	2006년 12월 22일	2008년 5월 1일	
11	조지아	2007년 11월 21일	2008년 11월 1일	
12	몬테네그로	2008년 5월 26일	2010년 3월 1일	
13	세르비아	2009년 6월 1일	2010년 10월 1일	
14	칠레	2009년 7월 14일	2011년 3월 1일	
15	요르단	2009년 12월 1일	2011년 3월 1일	
16	레바논	2010년 11월 24일		내부비준 절차 완료 후 적용
17	모리셔스	2011년 10월 9일	2013년 6월 1일	
18	대한민국	2012년 8월 1일	2013년 5월 1일	
19	코소보			내부비준 절차 완료 후 적용

자료: 터키 경제부(2014년 8월 확인 정보), 코트라 국가정보 재인용.

터키 정부는 터키 공화국 건립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2023년을 목표로 한 농업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축산업 분야의 목표는 현재 축산 및 낙농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었다. 특히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품종개량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국내산 가축들의 유전자를 향상시키거나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우량품종의 유전자들을 수입하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 및 낙농산업에 대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터키 내에 생산성을 강화하고, 인근 국가들과 거래를 늘릴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¹⁾ 터키의 축산 및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생산성, 분뇨처리와 같은 환경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2.2. 터키의 교역

터키는 1990년대 이후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을 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1991년 EFTA(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발돋움 하였다. 1996년 터키의 가장 큰 교역상대인 EU와의 관세동맹(1996년 체결)을 위해 수출입 관련제도를 EU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EU국가들과의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EU와의 수출입이 확대되었다. 같은 해 3월 이스라엘, 1999년에는 마케도니아, 2002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등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여 현재 1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레바논, 코소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FTA를 통해 2000~2012년 사이 총 수출액 446%,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액이 551%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총 수입액 340%, FTA 협정국에서의 수입액이 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터키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페루, 중앙아메리카, 알제리,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도 무역보완 협정을 체결해왔고, 특히 이슬람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 경제무역협력기구인 이슬람 개발도상국 8개국 회의(Developing Eight)를 창설하였으며, 현재 터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1964년 터키, 이란, 파키스탄이 창설한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는 지역협력개발기구에서 발전된 형태로, 1992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11)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Republic of Turkey(2014).

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춘 신흥국들의 협력체이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흑해 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를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및 수송 등에 대해 움직이는 거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며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2.2.1. 수출

터키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 이라크,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EU국가나 주변 중동 국가와 미국으로 주로 선진국과의 교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수출국을 대상으로 자동차나 기계 부품, 철강, 의류, 귀금속 등을 주로 수출하며, 터키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독일은 터키 수출 상대국 수출액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독일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연료, 의류 등이며, 농산물 및 식품으로는 소금, 식초, 음료, 만감류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터키의 농산물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포도, 토마토, 오렌지 등 일부 품목에서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포도가공품 중 건포도는 세계 수출량 및 수출액 부분에서 1위를 차지(2011년 기준)하고 있고, 토마토와 오렌지는 각각 4위와 5위이다.

터키의 주력 수출 농산품은 헤이즐넛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다. 터키는 2012년 66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산업화된 농장경영으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미

표 11 터키의 수출대상국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대상국	수출액		상위권 점유율(%)	
		2012	2013	2012	2013
1	독일	13,125	13,736	18.4	19.5
2	이라크	10,824	11,970	15.1	17.0
3	영국	8,693	8,806	12.2	12.5
4	이탈리아	6,372	6,730	8.9	9.5
5	프랑스	6,198	6,393	8.7	9.1
6	러시아	6,683	6,979	9.3	9.9
7	미국	5,603	5,651	7.8	8.0
8	UAE	8,182	4,968	11.4	7.0
9	스위스	2,122	1,017	3.0	1.4
10	스페인	3,718	4,343	5.2	6.2
	10개국 합계	71,520	70,593	100%	100%

자료: World Trade Atlas, KOTRA Global window에서 재인용.

국(3만 톤)이나 이탈리아(8만 6천 톤), 중국(2만 3천 톤)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터키의 헤이즐넛 수출대상국은 주로 인근 EU 국가들로, 이탈리아(26.9%), 프랑스(16.4%), 독일(13.5%), 캐나다(6.5%), 스위스(5.3%), 폴란드(3.8%), 러시아(3.4%), 벨기에(2.8%), 스페인(2.0%), 네덜란드(1.9%) 등 선진국이며서 고급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헤이즐넛은 견과상태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초콜릿의 부재료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초콜릿 생산 국가들로 다량 수출되고 있다.

표 12 터키의 주요 수출 농산물

단위: 천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수량	수출액
1	헤이즐넛	146	1,041
2	밀가루	2,063	934
3	기타조제식품	260	724
4	조제견과류	107	638
5	페이스트리	284	618
6	건포도	214	506
7	기타조제초콜릿	149	434
8	토마토	577	432
9	닭고기	234	381
10	생담배	68	369

주: 2011년 기준 수출실적임.
자료: FAOSTAT.

표 13 터키의 주요 수출 농산물과 상위 수출 대상국

단위: 톤, 달러

순위	품목	1위	2위	3위
1	헤이즐넛	이탈리아(26.9%)	프랑스(16.4%)	독일(13.5%)
2	밀가루	이라크(64.6%)	아제르바이잔(20.9%)	요르단(9.6%)
3	기타조제식품	이라크(10.3%)	프랑스(5.6%)	알제리(3.7%)
4	조제견과류	독일(29.9%)	이라크(8.7%)	이탈리아(4.7%)
5	페이스트리	이라크(30.4%)	예멘(6.2%)	사우디아라비아(5.1%)
6	건포도	영국(28.0%)	독일(18.2%)	네덜란드(11.5%)
7	기타조제초콜릿	이라크(22.2%)	알제리(12.4%)	리비아(4.0%)
8	토마토	러시아(58.1%)	우크라이나(7.4%)	불가리아(5.9%)
9	닭고기	이라크(50.8%)	홍콩(8.6%)	베트남(7.0%)
10	생담배	미국(19.2%)	인도네시아(13.1%)	필리핀(10.0%)

주: 2011년 기준 수출실적임.
자료: FAOSTAT.

밀가루는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생산국 중 극히 작은 일부를 차지한다. 국내 생산량으로 수요를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산 밀가루는 두 번째로 가장 교역량이 많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터키의 밀가루는 이라크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회교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요르단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포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상대국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이다. 초콜릿으로 유명한 터키는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로 대부분의 조제 초콜릿을 수출 하고 있다. 토마토의 경우, 과피가 얇기 때문에 교역거래가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인접국가로만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유일한 축산물인 닭고기는 이라크, 홍콩,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하고, 터키산 생담배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2.2.2. 수입

터키의 경제는 급증하는 인구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매년 특히 에너지 분야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내 생산능력의 한계로 수입이 급증하였고, 터키의 무역수지 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터키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기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으로, 에너지의 절대적인 부

표 14 터키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입대상국	수입액		상위권 점유율(%)	
		2012	2013	2012	2013
1	러시아	26,632	25,087	19.7	18.3
2	중국	21,300	24,712	15.8	18.0
3	독일	21,403	24,240	15.9	17.7
4	미국	14,130	12,605	10.5	9.2
5	이탈리아	13,350	12,900	9.9	9.4
6	이란	11,971	10,381	8.9	7.6
7	프랑스	8,593	8,090	6.4	5.9
8	한국	5,657	6,094	4.2	4.5
9	인도	5,845	6,373	4.3	4.7
10	스페인	6,025	6,430	4.5	4.7
	10개국 합계	134,906	136,912	100%	100%

자료: World Trad Atlas, KOTRA Global window에서 재인용.

족으로 인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 수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터키의 주요 수입상대국은 러시아로, 주로 에너지를 수입하며, 자동차나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터키는 한국과의 교역수준도 높은 편이다.

의류회사의 외주업체가 많이 위치해 있는 터키는 의류 수출국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원재료인 생면(Cotton lint)에 대한 국내생산 한계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터키는 생면 품목에서 세계 제 2위 수입국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생면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밀과 대두이다. 밀가루 음식을 주로 먹는 터키인 들이기 때문에 밀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밀 역시 국내 생산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일부를 수입량에 의존하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밀을 수입하고 있고,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일부 수입하고 있다.

표 15 터키의 주요 수입 농산품

단위: 천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수입량	수입액
1	생면 (Cotton lint)	604	1,850
2	밀	4,755	1,623
3	대두	1,298	687
4	고무(Rubber Nat Dry)	136	672
5	해바라기유	470	629
6	해바라기씨	906	590
7	소고기	110	509
8	팜유	429	454
9	기타조제식품	86	372
10	생담배	49	298

주: 2011년 기준 수입실적임.

자료: FAOSTAT.

대두는 세계 4위 생산국인 파라과이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자연건조고무와 팜유는 세계 최대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며, 해바라기씨와 해바라기유는 세계 5위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생담배는 세계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에서 수입한다. 터키는 상대적으로 주변국이나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주요 수입상대국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표 16 터키의 주요 수입 농산물과 상위 수입 대상국

단위: 톤, 달러

순위	품목	1위	2위	3위
1	생면 (Cotton lint)	미국(69.8%)	브라질(7.9%)	그리스(6.7%)
2	밀	러시아(37.4%)	미국(19.0%)	우크라이나(12.2%)
3	대두	파라과이(27.5%)	브라질(24.6%)	미국(23.5%)
4	자연건조고무	인도네시아(50.3%)	태국(23.2%)	말레이시아(15.3%)
5	해바라기유	우크라이나(71.7%)	러시아(16.7%)	아르헨티나(10.3%)
6	해바라기씨	우크라이나(28.8%)	불가리아(28.1%)	몰도바(21.8%)
7	소고기	폴란드(53.3%)	독일(18.7%)	프랑스(15.5%)
8	팜유	말레이시아(62.8%)	인도네시아(35.5%)	네덜란드(1.5%)
9	기타조제식품	네덜란드(23.7%)	독일(18.0%)	이탈리아(9.4%)
10	생담배	브라질(28.9%)	중국(10.6%)	미국(10.4%)

주: 2011년 기준 수입실적임.
 자료: FAOSTAT.

2.2.3. 안국과의 교역관계

한-터키 FTA가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면서, 양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한국의 對 터키 농산물 수입액은 5,81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1% 증가하였다. 특히 밀과 앞담배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량이 각각 5.2배, 1.1배 증가하였고, 권련과 소원피도 전년 대비 각각 2.1배, 6.0배나 증가하였다. 앞담배의 경우

표 17 한국의 對 터키 수입 농산물

단위: 천 달러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1	밀	5,545	8,741	4,509	2,681	16,640	520.7%
2	생담배	12,492	5,991	7,970	4,325	9,149	111.5%
3	권련	4	0	1	1,282	3,957	208.7%
4	소원피	216	55	145	370	2,608	604.9%
5	기타파스타	1,007	975	1,640	2,636	2,395	-9.1%
6	올리브유	1,678	1,884	1,783	1,153	2,092	81.4%
7	가죽	2,197	1,811	2,015	1,501	2,068	37.8%
8	유장	385	200	616	2,171	1,897	-12.6%
9	해바라기씨유	4,023	6,083	1,802	2,734	1,550	-43.3%
10	캔디	79	588	460	669	1,455	117.5%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FTA체결 이전에도 다량 수입되던 품목이나, 권련의 경우 FTA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시점인 2012년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2013년에는 수입량이 전년 대비 2.1배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수입 품목은 아니지만, 사과, 오렌지, 포도, 초콜릿은 한국의 주요 對 터키 수입품목이며, 특히 포도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배 증가한 가운데 건포도는 FTA 체결로 인해 21%였던 기준관세가 즉시 철폐¹²⁾되며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한국의 주요 對 터키 수출품목을 보면, 잎담배와 제조담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혼합조제식품, 젤라틴, 가죽, 검의 수출량이 급증하였다. FTA 체결 시점 이후로는 참깨와 보드카가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18 한국의 對 터키 수출 농산물

단위: 천 달러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1	생담배	3,198	1,130	1,904	2,729	2,851	4.5%
2	혼합조제식품	2,139	2,501	2,221	1,477	2,540	71.9%
3	젤라틴	1,832	1,373	1,780	1,083	1,934	78.7%
4	참깨	0	0	0	0	1,266	-
5	가죽	209	800	714	520	705	35.6%
6	검	244	0	162	421	692	64.7%
7	기타제조담배	0	0	0	468	469	0.1%
8	보드카	0	0	0	0	273	-
9	라면	117	189	130	116	207	77.8%
10	채소종자	3	19	216	241	202	-16.5%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실질적인 무역 이외에도 한국은 터키와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2년 5월 26일 경북도지사는 터키의 불사주와 농업분야 신기술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¹³⁾ 같은 해 12월 당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터키 농업부 장관이었던 메흐멧 메르디 장관과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¹⁴⁾

12) 한-터키 FTA 협정문

13) 아시아뉴스통신, 「경북도, 터키 불사주와 농업분야 MOU 체결」, 2012년 5월 28일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355474&itthread=09r02>

14) 파이낸셜뉴스, 「서규용 농림부 장관, 터키와 농업협력 MOU」, 2012년 12월 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771385>

3. 시사점

터키 공화국의 창립 이래로 터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세계정세의 흐름에 맞춰 경제발전을 이룩해왔고, 회교권 국가 중 유일하게 서방국가와 친교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덕분에 무역시장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고, 올 해 8,133억 달러의 GDP를 달성하며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이 터키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종교와 아랍어 교육을 강화하였고, 서방국가들은 “터키가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¹⁵⁾ 터키는 EU와 1996년 관세동맹을 맺은 이후로 아직도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 중이고 서방국가는 터키의 주요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한 터키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터키는 농업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를 이용하여 농업 분야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터키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초과하지만, 터키의 농산물 교역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가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밀과 같은 주요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터키 정부가 농업 R&D 분야에 높은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주변국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 터키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중인 국가로서는 정치와 국가이념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의 수준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터키의 농업분야에는 앞으로 수행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그 만큼 발전할 여지와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터키 FTA 체결과 한국과의 농업기술협력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해 터키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나라’ 터키가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농업발전을 이루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과의 농업협력 및 교역을 통해 양국이 미래의 식량안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협력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5) 조선일보, 「종교·아랍어 교육강화...100년前으로 가려는 터키」, 2014년 12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0/2014121000310.html

참고문헌

한-터키 FTA 협정문

Livestock Central Research Institute(2013). Dairy sector in Turke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vestock, Republic of Turkey(2014). Structural Changes and Reforms on Turkish Agriculture 2003-2013.

World Bank(2014). Agricultural Policies and Trade Paths in Turkey. Development Research Group.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eam.

참고사이트

경기도 농업기술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9603&cid=46686&categoryId=46694>)

ASIA NEWS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355474&thread=09r02>)

CHOSUN NEWS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0/2014121000310.html)

CIA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u.html)

FAOSTAT (faostat.fao.org/)

Financial 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771385>)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Inc. (www.gtis.com/gta/)

UN Comtrade (comtrade.un.org/)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www.fas.usda.gov)

WTO (www.wto.org)